

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
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
주장하며,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,
어디에서, 혹은 무엇이랴도 예배할 수 있는
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.

의미:

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또한 우리는 우리와 다른
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합니다. 이것을 종교의 자유라고 부릅니다.